

오피니언

다산포럼

허욱



북한이 6자 회담에 다시 참가하겠다고 밝혀 북 핵실험 이후 고조됐던 한반도 위기...

하지만, 향후 10년 안에 남북관계의 질적인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미중 간에 최근 '북한체제 전환'(regime change) 논의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을 예의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오히려 한국이다. 미국이나 중국, 일본이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과는 달리 당장 내년에 대선전이 시작되면...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탈세 고소득자영업자 처벌 강화해야

국세청이 6일 발표한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의 탈세 실태와 규모를 보면 분노를 넘어 허탈할 정도다.

특히 이들은 최근 10년 동안 재산을 무려 3.6배나 불려 탈세를 재산증식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의 탈세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 고질병이다.

세당국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영업자의 소득을 파악해 탈세를 막겠다고 큰소리쳤지만 고소득 탈세 적발과 처벌이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고 있다.

고소득자의 소득과약은 조세정의는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사회전반의 형평성과 직결된다는 점에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정부는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한다며 불공평의 지급만 쥐어줄 게 아니라 고소득 탈세자에게 공정과세의 칼날을 들이대야 한다.

남구 노인요양원 장기 표류 안된다

3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시 남구 노인전문요양원 건립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주인들과 인애동산 측의 갈등은 심각했다. 주민들은 반대시위와 철야농성을 벌이며 물리적 충돌까지 빚었다.

노인요양원 건립이 장기 표류해선 노인수발보험 시범시도에 차질을 빚게 된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노인수발보험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노인요양원 건립은 정부가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한 노인수발보험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남구는 안도 및 경북 안동시, 부산 북구 등과 함께 노인수발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돼 요양원을 건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시·군은 이미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노인요양원 건립이 장기 표류해선 노인수발보험 시범시도에 차질을 빚게 된다. 시범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면 노인수발보험은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다.

無等鼓

요즘 희귀화폐 수집 인기가 대단한 모양이다. 공직자가 국고를 빼돌려 희귀화폐를 사들이는가 하면 기념주화 발행에도 주머니 넣는다.

현재 우리나라엔 3만여명의 화폐 수집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희귀화폐는 희소성, 보존상태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발행연도가 오래 됐으면서도 상태가 깨끗한 화폐일수록 가격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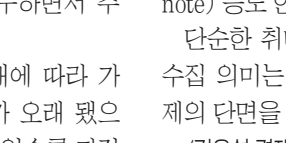
이 높다. 얼마 전 한 경매에서는 몇 개 없는 1906년 발행 20원짜리 금화가 1억 2500만원에 낙찰됐다.

지폐는 일련번호 조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111111'처럼 하나의 숫자로 이뤄진 솔리드 노트(solid note)나 '2571752'처럼 앞뒤 어디에서 읽어도 번호가 같은 팔린드롬(palindrome), 둘째 자리 숫자부터 '0'만 계속되는 밀리언노트(million note) 등의 번호를 가진 화폐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 화폐에서 화폐도안이 바뀐 현관권까지 다양하다.

단순한 취미생활을 넘어선 희귀화폐 수집 의미는 아무래도 우리 사회와 경제의 단면을 모은다는 데 있는 것 같다.

김우성 경제부장 wskim@kwangju.co.kr

화폐수집



NGO 칼럼

김용출



아시아문화전당에는 법적으로 594대 이상의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수많은 운영보고서와 토론회에서 주차장 분산배치는 필수조건으로 주장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지난 2년 동안의 수많은 운영보고서와 토론회에서 주차장 분산배치는 필수조건으로 주장되었다.

문화전당 주차장 솜통을 트는 처방

594대이기 때문에 관계 법령상 처음부터 분산배치가 불가능했던 것이다.

그러서, 600대를 전당 안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다.

차량 분산배치는 필수조건으로 주장되었다. 문광부 역시 예비종합계획에 분산배치를 계획했다.

교통체증·바가지 상환에 멍든 단풍놀이

지난 토요일 가족들이 장성 백양사에 단풍놀이를 다녀왔는데, 몇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다.

너무 많은 차량들이 백양사 내부에 진입하느라 걸어서 올라가는 행객들이 차량을 피해 다녀야 했다.

또 숙박지의 바가지 요금도 문제였다. 통상 모래·여관의 하룻밤 숙박비가 3만~4만 원인데 이 지역에서는 3배에 이르는 값을 숙박비로 지불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점은 신속히 개선하지 않으면 외지인들에게 나쁜 인상을 남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정렬·부천시 중구 보수동



눈 못 뜨는 새끼들



태어난 지 3일된 시베리아 허스키의 새끼들을 본 적이 있는가. 고물고물 잘 늘긴 하는데 눈을 못 뜨고 있다.

그러나 초식동물의 새끼는 다르다. 비록 한두마리만 낳지만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오감이 모두 살아있다.

특히 커다란 눈은 초롱초롱 빛날 정도다. 태어난 지 30분 가량 지나면 대부분 일어나 내달린다.

조물주의 뜻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첫째, 육식동물들은 너무 많이 낳는다는 것이다.

많은면 결국 모두가 미숙한 채로 태어나기 쉽지 않을까. 둘째, 감각을 키우기 위하여 아날까 하는 생각이든다.

영화 '서편제'에서 보면 득음을 얻기 위해 딸의 눈을 멀게 하는 아버지가 나온다.

육식동물들에게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각보다는 후각이나 청각을 키우기 위해 일부러 15일이라는 일축의 시간을 설정해 주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최종욱 광주우치동물원 수의사 lovnat@hanmail.net

독자마당

독후감 숙제도 좋지만 독서가 즐겁도록 했으면

초등학생인 아들이 얼마전 "필독 도서라 이번까지 독후감을 써 제출해야 한다"며 책 한 권을 가지고 고만하고 있었다.

학교에서는 책을 많이 읽도록 하기 위해 독후감을 써 제출하라고 하는 것 같다. 초등학생들의 경우 책에 흥미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무조건적인 독후감 제출은 바람직하지 않다.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자칫 책을 멀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아이들마다 다른 관심 거리와 책 읽기에 대한 개인차를 인정, 즐겁게 책을 읽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후감 숙제를 내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손혜정·광주시 광산구 대신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circulation data.